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대회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회장 심용현)가 주관한 '제22회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4~5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 소속 155개 클럽에서 668개 팀, 1,336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선수들은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각 종목에서 연령과 급수에 따라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치열한 경쟁 끝에 각 급수별 총 89개 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회 종료 후에는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 행사가 마련돼 생활체육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전북은행 소속 배드민턴 국가대표 공희용 선수가 참석해 팬사인회를 진행하며 참가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전북은행 '쏙뱅크'와 SNS를 홍보하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운영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청소년 도박 근절 등 위한 전국 스피치 대회 성료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가 주최한 '학교폭력·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전국 웅변·스피치·시 낭송 대회'가 지난 4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서는 김양옥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남관우 전북자치도의원, 김해금 오리진 유통 대표, 김기수 전북리더십 연구원장, 이호기 이사, 강정원 스피치 지도자 등 임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주요 입상자로, 대학 일반부 전체 대상에 오이순씨와 김평호씨, 전체 특상으로 이만세씨와 김대선씨, 전체 최우수상에 최정임씨와 이영희씨가 차지했다. 김해금, 정은지, 서강원, 진문택, 정순임, 정미영씨가 대학 일반부 대상을, 최미영, 소진희, 유창수씨가 대학 일반부 특상을 수상받았다.

학생부 대상에는 조윤성, 곽하진, 김학윤, 장서희, 김민서 학생이 수상했으며, 학생부 특상에 임예린, 학생부 최우수상에 강태빈 학생이 수상받았다.

시 낭송부 대상에 김귀녀, 전유덕씨, 시 낭송부 특상에 이호기씨와 성민재씨, 시 낭송부 최우수상에 박진미, 곽지오씨가 수상받았으며, 강사부 대상에 소진희씨, 강사부 특상에 김보미씨, 강사부 최우수상에 최승희씨가 수상받았다. 김소영씨와 이만세씨는 지도상을 받았다.

이밖에 유세춘, 김정미, 임선희, 신미지씨는 이날 함께 진행된 대회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복지안전협의체 위원 위촉식

남원시는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복지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지리산권 4개 읍면(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의 협의체 위원 및 담당자가 참석, 1차 회의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안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 수행 4년차인 2026년 △읍면동 복지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및 역량강화교육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사업 △AI 안부전화 서비스 △폭염 대응 안전 캠페인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와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스마트돌봄팀(620-667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전한 일상 향한 첫 현장행보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 여름철 재해 대응태세 점검

지난 3일 제21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 진형민 본부장은 6일 첫 현장행보로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를 방문해 폭염과 풍수해 대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별도의 취임행사를 대신해 이뤄진 것으로, 형식적인 취임 절차보다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대응현장을 먼저 살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첫 행보라는 의미를 더했다.

진 본부장은 이날 특수구조대의 여름철 재난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수난구조 장비와 특수구조차량 등 주요 장비의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출동태세와 현장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대원들과 소통하며 여름철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특수구조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일수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취임 후 첫 현장으로 119특수대응단을 찾은 것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폭염과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해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누구나 평등하게 보호받는 전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면민 화합·고향 사랑다지기… 순창 동계면민의 날 성료

순창군 동계면민들의 화합과 고향 사랑을 다지는 제33회 동계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4일 동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계면민회(회장 양준섭)가 주최하고 동계면사무소(면장 김진희)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면민과 재경·재전 향우회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내외빈 1,4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의 정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황재열 면민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희승 국회의원과 최영일 순창군수, 황숙주 전 순창군수, 장승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오수환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이 참석해 면민들과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재경동계향우회 이정기 회장과 이용윤 동계장학회 이사장, 김형수 전 회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향우회원과 재전순창향우회 김용군 회장, 재전동계향우회 이형구 회장, 황의옥 전북약사회 전 회장, 김병수 호남고속 대표, 이만호 전주매일 정치부장, 최형원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김종옥 광천실업 대표, 이현선 녹색안전산업 대표 및 회원 20여 명도 고향을 찾아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개회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동계면 동호인 모임의 농악공연과 색소폰 연주를 비롯해 동계면 여성합창단의 공연, 어르신들로 구성된 취타대 공연이 이어지며 행사장을 찾은 면민들의 흥을 한껏 북돋웠다.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면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황의종 전북고속 대표가 애향화합장을, 유일용 전 면민회장이 문화체육장을 각각 수상했으며, 정일균(작고) 전 면민회장과 최환석 동계파출소장, 장연양계 영농조합법인에는 감사패가 수여돼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청 간부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해 동계면민의 날을 축하하며 지역 발전과 면민 화합을 기원했다. 동계면 출신인 오수환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도 행사 내내 면민들과 어울리며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개회식 이후에는 면민 화합 한마당이 펼쳐졌다. 대중가수 신나윤과 금산이의 축하공연, 윤혜지·고도영의 퓨전국악공연 등이 이어져 행사장은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으며, 면민과 향우들은 함께 노래하고 어울리며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을 이뤘다.

올해로 33회를 맞은 동계면민의 날 행사는 지역의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품격을 더해가며 면민과 향우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지역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준섭 동계면민회장은 "이번 행사는 면민과 향우들이 하나 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고향의 정을 이어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아름다운 동계면민의 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순창=이양원기자

남원소방서, Pre-KTAS 기반 이송체계 정착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진=남원소방서 제공〉

남원소방서는 한국형 병원 전(前) 응급환자 분류기준(Pre-KTAS) 도입과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을 통해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체계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Pre-KTAS는 2024년 2월 도입되어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시스템으로, 현재 도내 119구급대와 주요 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병원)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참여하고 있다.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수용 여부를 신속히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Pre-KTAS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를 객관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관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시스템 정착으로 병원 간 분산 이송이 원활해지며 특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크게 완화되었다.

최승범 구급팀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도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2분기 우수직원 등에 표창 수여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3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선 소속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분기 우수직원 및 2026년 상반기 119 HERO 구급대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2분기 우수직원 동료평가 포상제 선정자로는 장수119안전센터 소방교 유상옥이 표창을 받았다. 유상옥 소방교는 평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현장 활동에 임하며, 동료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어 우수직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26년 상반기 119 HERO 구급대원으로는 총 3명이 선정됐다. 장계119안전센터 소방장 박지혜, 장수119안전센터 소방장 최재균, 소방교 이솔이가 그 주인공이다. 특히 박지혜 소방장은 이번 표창으로 119 HERO에 세 번째로 선정되며 베테랑 구급대원으로서의 탁월한 역량과 헌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수상자들은 평소 철저한 구급 장비 점검과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군민에게 고품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 최초 NH손보 '명예의 전당' 헌액
임미정 진안농협 차장, 농민 경영안정 기여

진안농협 임미정 차장이 전북 농축협 역사상 처음으로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김용재)은 지난 2일 열린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진안농협 임미정 차장이 전북 최초의 헌액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해 수상의 의미를 함께했다.

임 차장은 오랜 기간 농업·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 보장 확대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전북 농축협 역사상 첫 명예의 전당 헌액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은 전국 농축협 임직원 가운데 손해보험 추진 실적이 가장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만을 선정하는 최고 권위의 포상이다.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헌액자는 13명에 불과할 정도로 선정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근 기자

김제시,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실천 추진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함께 지난 4일 성산공원 일원에서 '김제시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실천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실천 릴레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모니봉사단, 대한적십자봉사회 김제시협의회, 김제시자율방범연합대, 김제시 새마을부녀회, 패트롤맘 김제시지회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 실천 선언을 진행했으며, 특히 하모니봉사단은 60여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발대식 이후 본격적으로 성산공원 주변 플로깅 활동을 펼치며 환경정화에 앞장섰다. /김제=곽노태 기자

허재성·권이연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황휘종)은 이달 1일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허재성·권이연 부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허재성·권이연 부부는 1998년부터 영농에 종사하며 수도작을 전업으로 재배하는 농가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 영농농사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농업 경영비 절감과, 쌀 품질 개선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부부는 "지역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주변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경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육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일 정읍시 2청사에서 베트남 계절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보이스피싱 사례와 그 대응법, 신종마약 및 처벌 법규,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